석유는 땅에 파이프를 박아 놓으면 저절로 나온다. 석유는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땅속에 축적해 놓은 에너지다. 그런데 워낙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청망청 써 왔다. 불과 150년 썼는데 벌써 고갈된다는 말이 나온다. 어차피 석유는 인류 역사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질 에너지원이다.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중간의 청동기시대에 비유한 사람도 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모든 집에 달리는 궁전 하나씩을 보급하겠다"고 했다. 자동차를 모는 것은 에너지 소비량으로 따지면 궁전에 살았던 옛날 왕보다 못할 게 없다.